

「지젤」 작품 2막의 안무에 관한 멜랑콜리(Mélancolie) 분석*

-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

박건아** · 손재현***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참고문헌
III. 알렉산더 딘의 무대공간 관점에서 본 「지젤」 2막 분석	Abstract

I. 서론

본 연구는 발레 「지젤」 2막의 안무를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멜랑콜리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막의 안무는 지젤이 자신의 죽음 이후 상실과 고통을 겪어 복수와 애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이론은 상실된 대상을 내면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갈등과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젤」 2막에서 지젤은 자신의 죽음과 상실을 극복하려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를 보여주며, 이러한 감정 상태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상실된 대상에 대한 깊은 정서적 결속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복수심과 슬픔이 다층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젤과 알브레히트의 안무를 멜랑콜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두 주인공 간의 감정적 상태와 안무의 내재된 심리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며 작품에서의 예술적 표현이 감정적 복잡성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멜랑콜리(mélancolie)는 '우울'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나 분위기를 의미하며(김동규, 2014, p. 14)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삶과 예술을 불문하여 수많은 슬픔을 몸소 겪거나 목격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상을 향한 꿈이 낙심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울까지 일상생활 가운데 멜랑콜리를 경험한다. 특히 사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경험 속에서 멜랑콜리가 발현되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멜랑콜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술에서 정의하는 멜랑콜리는 인간의 삶과 내면에서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대 세계와 문명 속 심리적 상실감과 우울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많은 예술 작품에 정신적

* 본 연구는 2024학년도 박건아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동국대학교 체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shon3420@hanmail.net

영감을 제공하는(김성현, 2018, p. 1) 동시에 영감은 현대 예술 작품에서 공감, 긍정, 비극, 숭고, 환상 등 여러 감정적 측면을 탐구하는 원동력이 되며 시각적, 감각적, 정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18세기 후반, 낭만주의 시기에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노동의 의미가 개인의 능력에서 벗어나면서 현대 자본주의가 정립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개인주의는 자유 경쟁 원리와 개인의 주도권이 함께 나타났으며(유정은, 2017, p. 2) 이는 인간을 규격화된 존재로 만들고 사회질서에 대한 반항을 초래했다. 이러한 반항은 감정의 절실한 표현을 강조하는 주정주의로 이어져 낭만주의 예술에서 시민계급의 낙관주의와 모순되는 우울하고 음침한 비가(悲歌)적 정서를 드러내는 비관주의를 생겨나게 하였다(나일화, 2003, p. 122). 또한 낭만주의 감성 우월주의는 자의적 사고방식이 정착되었고 죽음을 염원함으로써 자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낭만주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우울성이 극대화되면서 예술의 여러 분야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지젤, Giselle」(1841)은 죽음이라는 소재와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어 낭만주의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 「지젤」은 19세기 초에 작성된 로맨틱 발레로, 프랑스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테오필 고티에(Théophile Gautier)가 대본을 작성했고 음악은 아돌프 샤를 아당(Adolphe Charles Adam)이 작곡했다. 고티에는 「지젤」의 대본을 저술하면서 멜랑콜리에 대한 매력을 담아내었고 슬픔, 그리움, 향수와 같은 정서적 깊이를 탐구했다(Montandon, 2011, p. 108). 그는 우울을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아름답고 사색적인 마음 상태로 묘사했으며(Baudelaire, 1859, p. 16) 생생한 이미지와 연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멜랑콜리의 본질과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했다.

발레는 대본을 기반으로 언어가 몸으로 재현되며(김경희, 2008, p. 15) 일정한 줄거리를 통해 극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중 낭만주의 무용은 우울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반영하며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움을 보여준다(이자명, 2005, p. 17). 인간 삶의 근본적인 고통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정할 때, 멜랑콜리는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박혜정, 2016, p. 102). 슬픔이나 우울은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나타나며 죽음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무용 예술의 특색 상, 그 안에서 멜랑콜리를 논의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멜랑콜리를 언급한 다양한 학자들 가운데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양가감정(ambivalenz)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이나 상실로 인해 슬픔과 분노,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동일화(identifizierung)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강한 정서적 결속을 느끼고, 그 대상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백가현, 2022, p. 19). 멜랑콜리는 작품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환상적이거나 몽환적으로 관객을 작품의 내면세계에 스며들게 한다. 관객은 극 중 등장인물이 겪는 고통과 비극의 여러 요소를 간접적으로 경험함과 동시에 멜랑콜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멜랑콜리를 통해 「지젤」 작품에서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이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을 드러내며 내면의 갈등을 다양한 양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지젤의 슬픔과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발레라는 예술적 형식을 통해 무용수의 감정, 움직임, 제스처 등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을 살펴보면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문화적 맥락에서 멜랑콜리적 감정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지젤’, ‘발레’를 키워드로 RISS에서 선행 연구를 검색한 결과, 국내 학위 논문 47건과 국내 학술 논문 41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지젤」 작품의 미학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로, 다음과 같은 3편을 살펴보고 있다.

묘희문(2022)은 ‘낭만주의 발레작품 「지젤」의 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작품 해석에 있어서 송고미, 비극미, 우아미의 세 가지 미학적 특성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수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심미적 시각을 찾을 수 있다”(묘희문, 2022, p. 65)라고 주장한다. 유정은(2017)은 ‘낭만주의 발레작품 「지젤」에 나타난 비극성 연구’에서 비극성의 정의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탐구하고 「지젤」 작품을 안무적 및 음악적 측면에서 비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관객이 극중 인물에게 연민과 공포를 느끼며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유정은, 2016, p. 50). 또한 임정미(2011)는 ‘발레 「지젤」에 대한 미학적 접근 : 카타르시스를 중심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바탕으로 「지젤」 작품을 미학적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사랑과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임정미, 2011, p. 197). 이들 연구는 「지젤」 작품에 대해 각각도로 분석하며 발레 연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발레와 예술,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작품의 미적 가치도 함께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작품의 감정 분석을 다양하게 다루었지만, 상실감의 충격과 애도 정서, 특히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따라 멜랑콜리의 정서적 특성을 명확히 조명하고, 이러한 정서적 경험이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이 감정적 치유와 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인간 심리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이론을 기반으로 이에 따른 국내·외 연구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다.

「지젤」 2막의 안무적 측면에서 멜랑콜리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 매체인 유튜브(YouTube) 채널에 기록된 영상과 작품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활용하여 움직임 분석의 타당성을 적용하였다. 영상자료 분석은 1841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지젤」의 자료가 미비하여 가장 유사한 1983년 마린스키 발레단(Mariinsky Ballet)의 「지젤」 작품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낭만주의 발레의 예술성을 탐구하며 「지젤」 작품을 통해 멜랑콜리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2막의 안무와 마임, 무대 동선을 통해 멜랑콜리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안무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멜랑콜리의 정서적 깊이와 복잡성을 드러내고, 마임은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무대 동선은 캐릭터의 이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극의 감정적 흐름과 변화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젤」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에게 멜랑콜리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젤」 작품에서 멜랑콜리는 중요한 감정적 및 문학적 요소로 작용하며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지젤의 감정적 여정은 알브레히트의 배신과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멜랑콜리의 감정에 의해 깊어지며, 이는 2막의 초자연적이고 초현실적인 측면과 맞물려 독특한 정서를 전달한다. 멜랑콜리는 지젤의 사랑과 슬픔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여러 세대에 걸쳐 관객을 사로잡는 발레 작품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지젤」 작품 분

석의 관점을 다각화하고 지질의 문학적, 미학적 의미를 높이는 기초 자료로서의 이론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II.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멜랑콜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가 주장한 4체액설의 이론 중 하나로, ‘검은 담즙’을 의미한다. 멜란(Melan)은 검은색, 콜로(Chole)는 담즙을 뜻하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최세은, 2020, p. 3). 히포크라테스는 인체가 공기, 물, 불, 흙이라는 네 가지 원소에 상응하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최문규, 2005, p. 201).

멜랑콜리에 대한 논의를 크게 프로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연구는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조셉 힐리스 밀러(Joseph Hillis Miller),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를 비롯한 현대 멜랑콜리 담론의 이론적 뿌리가 되었다(박영석, 신명진, 임한솔, 이경, 손은신, 2020, p. 24). 프로이트는 1917년에 『애도와 멜랑콜리, Trauer und Melancholie』(1917)라는 논문을 발표했다(전유리, 2013, p. 6). 이 연구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연구의 일환으로, 슬픔의 정신적 회복에 관한 과학적 기초를 마련하며 멜랑콜리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손은신, 2015, p. 54).

프로이트는 멜랑콜리를 우리의 삶에서 겪는 상실감으로 설명했으며(Carhart-Harris, Mayberg, Malizia & Nutt, 2008, p. 15)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 무의식 가운데 억눌려 있다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다시 드러난다고 보았다. 멜랑콜리의 독특한 특성으로는 미지의 상실과 자애심의 추락을 들 수 있다. 미지의 상실은 상실된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장보운, 2013, p. 20). 이것을 슬픔과 비교할 때, 슬픔은 상실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 각각 구체적인 대상과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애심의 추락은 멜랑콜리에서 자아가 빈곤하고 공허해지는 것을 설명하며 상실된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에서 기인한다고 한다(조현숙, 2014, pp. 275-276). 멜랑콜리를 경험하는 인간은 자애심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게 되므로 자신이 사랑한 대상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개념에는 ‘양가감정’과 ‘동일화’, ‘나르시시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 중 양가감정과 동일화로 멜랑콜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가감정과 동일화는 주로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자아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애정과 우월성에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가감정과 동일화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상실의 슬픔이 어떻게 멜랑콜리로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1. 양가감정

멜랑콜리는 극도의 슬픔을 동반하며, 애증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사랑을 정의하면, 그것은 특정 대상에게 모든 관심과 성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행위로 대상에 대한 리

비도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겨라, 2013, p. 29).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동시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반대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나타낸다.

양가감정의 예시로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복합감정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부모의 규제나 제한으로 인해 증오감을 느낄 수 있다. 자아에 대한 양가감정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실망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직장 환경에서는 상사나 동료에 대한 존경과 동시에 그들의 특정 행동에 대한 증오를 공존하며 성적인 관계에서도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일부 행동에 대한 불만이 양가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Carhart-Harris, Mayberg, Malizia, & Nutt, 2008, p. 13). 프로이트는 이러한 양가감정이 정신적 충돌이나 방어기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양가감정의 한 형태인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는 것은 애증과 병존의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기로 작용하며(Hampartoumian, 2004, p. 28) 한 가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동시에 상반된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애증 병존이 나타난다면 해당 대상에 대한 사랑과 호감이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대한 불안 또는 거부감으로 충돌한다. 이로 인해 멜랑콜리는 단순한 상실의 슬픔보다 그 원인이 훨씬 광범위하며 대상에 대한 복잡한 감정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랑과 미움이 끊임없이 대립한다.

2. 동일화

동일화는 다른 사람이나 특정 그룹에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묘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Dozois, 2000, p. 184). 때로는 부정적인 특성과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생리적 충동이나 욕구가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때, 이를 허용되는 형태로 동일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왕철, 2012, p. 787). 예를 들어 성적인 욕구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때, 창의적인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의 동일화는 한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며 분노를 부끄러움이나 웃음으로 동일화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아동은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나 어른들의 행동을 동일화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일화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을 타인과 유사하게 느끼고자 하는 사랑의 감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상대의 특성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은 두 사람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동일화는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정신적 발달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멜랑콜리는 대중예술에서 흔히 다뤄지며, 관객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고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젤」 2막의 안무 특성에 관한 멜랑콜리를 살펴봄으로써 프로이트의 이론 중 양가감정과 동일화가 주인공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알렉산더 딘의 무대공간 관점에서 본 「지젤」 2막 분석

1. 안무

낭만주의 시대 발레는 가벼운 안무와 미적 심취에 부합한 기교로 발전하였다(신효영, 2022, p. 102). 이 시대의 발레 안무 특징은 연기와 마임을 통해 스토리 발레의 줄거리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며, 미적 표현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젤」 작품에서의 안무는 비극, 사랑, 상실, 우울 등 인간적인 주제를 다루며 순박한 사랑과 비극적 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먼저 작품의 1막 마지막 후반부는 2막의 멜랑콜리한 정서와 깊이 연결된다. <그림 1>에서 지젤은 사랑의 순수함으로부터 알브레히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면서 상실과 배신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겪는다. 그녀는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에서 점차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움직임 보여주며 절망과 광기를 통해 멜랑콜리한 양가감정을 드러낸다. 특히 지젤이 괴로워하며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장면은 작품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으로, 그녀의 사랑에 대한 환멸과 비통함이 극적으로 표현된다. 이때 고요함과 격동, 밝음과 어둠 사이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멜랑콜리한 감정의 깊이가 강조된다. 지젤의 격정적인 안무와 음악의 절정이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긴장감을 극대화 시키고 지젤의 마임과 표정은 공포와 즐거움, 슬픔과 기쁨 사이를 오가며 멜랑콜리적 양가감정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이러한 양면성은 지젤의 내면세계를 더욱 복잡적이고 심층적으로 형성하며 관객에게 복잡하면서도 공감과 연민을 불러 일으킨다.



<그림 1> 지젤 광란의 춤¹⁾

지젤 2막에서의 멜랑콜리는 죽음 이후 윌리(Wili)가 된 지젤의 고독과 영원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며 1막과는 대조적으로 더 깊고 복잡한 감정으로 표현된다. 특히, 주인공과 알브레히트의 파드되에서 멜랑콜리가 강하게 드러나며 그녀의 내면적 갈등과 복잡한 감정을 통해 멜랑콜리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1)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nkScSw&t=5762s>, 2023, 03. 28>.

〈그림 2〉는 지젤이 윌리들의 여왕인 미르타(Myrtha)가 알브레히트를 유혹하여 그를 지쳐 죽게 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알브레히트를 사랑하는 지젤은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나 미르타와 윌리들의 태도는 냉철하다. 이 장면에서 지젤의 마임과 표정은 단순한 사랑의 서사를 넘어, 깊은 내면적 갈등과 감정의 복잡성을 담은 양가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젤은 죽음을 초월한 상태에서도 알브레히트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며 미르타의 명령과 윌리로서의 본분 사이에서 깊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지젤의 안무와 표정은 사랑과 고통, 보호와 희생 사이의 이중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이러한 복합적 감정 상태는 멜랑콜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후에도 그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는 멜랑콜리의 핵심인 ‘상실한 대상을 떠나지 못하는 정서’이다.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사랑과 배신, 슬픔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가감정을 통해 지젤을 단순한 비극적 인물이 아닌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로 묘사하는 데 기여하며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강화한다.



〈그림 2〉 미르타와 윌리들로부터 지젤이 알브레히트를 보호하는 모습²⁾

〈그림 3〉의 파드되 안무는 지젤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어두운 세계를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알브레히트의 기대가 담겨있다. 파드되 안무에서는 지젤이 알브레히트를 구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그녀의 내면적 갈등은 자신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절망과 알브레히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얽힌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반면, 알브레히트는 지젤에게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며 지젤을 구하고자 하는 희망과 자신이 초래한 비극에 대한 절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를 통해 두 주인공 간의 내면적 갈등과 사랑이 동일화되어 드러난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갈등을 공유하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된 두 인물의 내면적 고뇌는 비슷하다. 궁극적으로 파드되는 두 인물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동일화하면서도 그들의 감정적 복잡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으로 기능한다.

2)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qncScSw&t=5762s>, 2023, 03, 28>.



〈그림 3〉 「지젤」 2막 파드되³⁾

〈그림 4〉는 2막의 엔딩 장면이다. 새벽이 찾아오면서 윌리들과 함께 지젤도 자신의 무덤으로 돌아가게 된다. 알브레히트는 지젤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지만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며 무력감과 절망을 느낀다. 이 장면에서 알브레히트가 지젤과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지젤을 영원히 그리워하는 안무는 멜랑콜리의 동일화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알브레히트는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지젤을 자신의 내면 속에 간직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지젤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의 고통을 강조한다. 지젤 또한 자신의 무덤으로 돌아가면서 영원히 이 세상과 작별하게 되는 슬픔과 상실감을 느낀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자신이 상실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마음과 알브레히트와의 추억을 떠나지 못하는 감정이 교차한다. 지젤의 마지막 움직임은 이러한 멜랑콜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그녀의 영원한 사랑과 상실의 감정을 드러낸다. 지젤과 알브레히트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할 수 없지만 서로의 내면 속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화를 느낀다.



〈그림 4〉 알브레히트가 지젤을 그리워하는 모습⁴⁾

3)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nKScSw&t=5762s>, 2023, 03, 28>.

1막과는 달리 2막에서 알브레히트는 지젤과 같은 감정인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며 두 주인공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알브레히트가 지젤을 망령으로부터 구하려는 노력은 그가 죽음과 이별에 대한 고뇌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지젤의 죽음에 대한 그의 안무와 감정이 동일화된 멜랑콜리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젤은 망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브레히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양가감정과 동일화를 함께 엿볼 수 있다. 지젤의 영혼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감정이 죽음을 초월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시 말해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양가감정과 동일화된 감정의 지속을 보여준다.

2. 무대 동선

무대 동선은 무용적인 공간 구성과 표현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대는 인간의 표현과 기교에 의해 창조된 공간으로,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대의 공간적 가치는 주로 평면 위에서 발휘되며 특정 위치에 따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무대 동선은 주인공의 감정 변화와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무대의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이동, 상하·좌우의 위치 변화는 캐릭터의 내적 갈등과 멜랑콜리와 같은 복잡한 감정 상태를 강화하여 관객에게 보다 강렬하게 전달한다. 이에 대해 예일 대학교의 교수인 알렉산더 딘(Alexander Dean)이 개발한 무대공간 이론을 살펴보면 움직임 형성을 위해 「지젤」 작품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공간과 움직임을 멜랑콜리의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딘은 무대공간을 <표 1>과 같이 6구역 구조로 구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1> 알렉산더 딘의 무대 공간⁵⁾

5구역	2구역	6구역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장소이며 환상, 사색 등에 사용	위엄있는 구역 법정의 선언, 고발, 연설, 결혼식 선서 등 의식적인 표현에 적합	비극적이고 어두운 표현
3구역	1구역	4구역
긴장감이 없고 친숙하고 온정감이 있는 구역이며 담화, 러브신 등에 적합	강한 인상을 주며 클라이막스, 투쟁, 발언, 중요한 표현 등에 적합	의례적 방문, 독백 등 친숙미가 결여된 형식적, 배타적 감정 표현에 적합

<그림 5>는 힐라리온(Hilarion)이 지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몸을 흔드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지젤이 위치한 6구역은 비극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표현하는 무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6구역의 어두운 공간적 특성은 지젤의 절망과 슬픔을 강조하며 내면적 혼란과 미약한 희망을 동시에 드러낸다. 지젤은 힐라리온의 강한 물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이미 상실한 알브레히트를 떠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애착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역의 공간적 특성은 지젤의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를 극적으로 표현하며 멜랑콜리의 양가감정 즉, 사랑과

4)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qkScSw&t=5762s>, 2023. 03. 28>.

5) 김영미, 이영찬(2013). 무용 무대공간 위치와 신체 움직임이 감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학회, 30(1), p. 3.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나타나며 지젤이 처한 상황과 그녀의 심리적 갈등이 관객에게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그림 6>은 1구역에서 지젤이 알브레히트로 인해 충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1구역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공간으로, 이 장면은 작품의 클라이맥스를 형성하여 지젤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멜랑콜리의 양가감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데 기여한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알브레히트를 향한 애정을 놓지 않으려 한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실한 대상을 떠나지 못하는 멜랑콜리의 극단적 표현이다. 1구역의 극적인 공간적 특성은 지젤의 복잡한 감정 상태를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키며, 그녀의 내면적 갈등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림 5> 지젤이 충격을 받은 모습⁶⁾



<그림 6> 지젤의 죽음⁷⁾

또한 <그림 7>에서의 지젤의 십자가는 3구역에 배치되어 있다. 3구역은 일반적으로 사랑과 다정함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무대 구역으로, 주로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서정적인 장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이 구역에 지젤의 십자가가 위치해 있다는 점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공존하는 공간을 형성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멜랑콜리의 양가감정과 동일화가 강하게 드러나며 지젤과 알브레히트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순간을 묘사한다.



<그림 7> 알브레히트가 지젤을 그리워하는 모습⁸⁾

6)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qkScSw&t=5762s>, 2023, 03. 28>.

7)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qkScSw&t=5762s>, 2023, 03. 28>.

지젤의 심리적 상태는 복잡한 감정의 층을 포함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실을 경험한 후에도 알브레히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품고 있다. 이는 멜랑콜리의 양가감정, 즉 상실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드러낸다. 또한 지젤은 죽음 이후에도 알브레히트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유지하며 자신의 존재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지속하려는 멜랑콜리의 동일화 감정을 나타낸다. 알브레히트 역시 지젤의 죽음 이후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며 양가감정과 동일화를 드러낸다. 그는 지젤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그녀와의 재회를 바라는 감정을 경험한다. 이 상반된 감정은 그가 지젤을 영원히 내면 속에서 간직하며, 그녀를 자신의 감정의 일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인물의 감정은 서로를 향한 감정이 상반된 방식으로 공존하며 감정의 복잡성을 극대화한다. 결과적으로, 「지젤」 작품의 안무와 무대 동선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극적이고 복잡한 감정을 깊이 전달한다. 지젤의 죽음을 초월한 공감과 헌신이 작품의 감정적인 깊이를 더하면서 관객에게 강렬한 감동과 풍부한 감정적 경험을 제공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낭만주의 발레 작품 「지젤」 2막의 안무와 무대 동선을 통해 멜랑콜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낭만주의 특성과 멜랑콜리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낭만주의 시대에는 우울성이 극대화되었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요소를 활용하여 「지젤」 2막의 안무적 측면을 깊이 분석함으로써 멜랑콜리가 작품 내에서 더욱 짙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살펴본 「지젤」 2막의 안무에 관한 멜랑콜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수의 안무를 통해 멜랑콜리의 양가감정과 동일화가 나타나며 특히 1막 후반부에서 지젤의 안무와 마임은 2막의 멜랑콜리적 분위기로 강하게 이어진다. 지젤은 알브레히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광기의 춤을 추며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랑과 배신의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멜랑콜리의 양가감정을 드러낸다. 2막에서는 지젤과 알브레히트를 통해 멜랑콜리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알브레히트가 지젤의 무덤을 찾아와 율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지젤은 미르타에게 그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한다. 지젤은 알브레히트를 지키려는 사랑과 헌신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상실과 절망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며 양가감정이 더욱 강조된다. 또한 파드되 안무와 알브레히트가 지젤을 영원히 그리워하는 움직임에서는 서로의 상실감과 그리움이 드러나며 두 인물의 동일화를 느낄 수 있다. 두 주인공 간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유정은(2017)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감정의 카타르시스 즉, 비극성이 작품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지젤의 안무와 마임을 통해 감정적 복잡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멜랑콜리의 감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지젤의 감정적 깊이를 한층 더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알렉산더 딘의 무대공간 6구역을 통해 무대 동선에서 멜랑콜리를 살펴본 결과, 1구역에서 지젤

8)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qnkScSw&t=5762s>, 2023, 03, 28>.

의 죽음과 십자가가 위치한 3구역은 멜랑콜리의 양가감정과 동일화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무대 동선은 지젤과 알브레히트의 서로 사랑하는 감정과 슬픔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우러져 관객에게도 깊은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동아(2022)의 연구에서도 작품을 통해 무대공간의 배치와 그에 따른 정서적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무대공간의 배치를 통해 전통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지는 표현을 이끌어내며, 무대공간의 활용이 정서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젤」의 무대공간 활용 또한 멜랑콜리라는 정서적 상태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두 연구 모두 무대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닌 등장인물의 내면적 감정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장동아(2022)의 연구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다룬 반면, 본 연구는 사랑과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멜랑콜리적 감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알렉산더 딘의 6구역을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적 변화를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의 주제와 시대적 배경,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적 깊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발레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작품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작품 분석은 안무가의 의도와 철학을 해석하고,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작품 분석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발레 작품의 경우, 줄거리가 이미 알려져 있어 전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결론 도출에 제한점이 있다. 결론이 정해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시각적 및 정서적 요소를 기반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작품을 분석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젤」 작품의 주인공인 지젤 역할을 맡는 무용수가 멜랑콜리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내재화하여 작품에 임한다면, 지젤의 캐릭터는 더욱 돋보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관객에게 멜랑콜리 정서를 뚜렷하게 경험하고, 「지젤」 작품에 대한 깊은 감동과 공감을 느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멜랑콜리 외에도 다양한 감정적, 미학적 요소를 분석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와 감정적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레 작품에 대한 연구와 감상이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되며,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가 문학적 배경을 가진 극적 발레를 감상하거나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나아가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동규(2014). **멜랑콜리아**. 문학동네.
- 박영석, 신명진, 임한솔, 이경, 손은신(2020). **ULC, 1 : 새로운 기억, 연출된 과거**. ULC Press.
- 박혜정(2016). **멜랑콜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Baudelaire, C.(1859). **Théophile Gautier**. Poulet-Malassis et de Broise.
- 김경희(2008). 국립발레단의 “한국적 발레” 작품들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55, 1-26.
- 김성현(2018). 4체액설의 멜랑콜리와 죽음의 춤에 나타난 문화적 의미: 영화<제7의 봉인>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32, 23-40.
- 김영미, 이영찬(2013). 무용 무대공간 위치와 신체 움직임이 감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 학회지**, 30(1), 1-18.
- 나일화(2003). 프랑스 낭만발레 쇠퇴원인에 대한 연구 : 오페라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12, 119-142.
- 묘희문(2022). 낭만주의 발레작품 <지젤>의 미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백가현(2022). 김윤아 작품의 애도와 멜랑콜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서동욱(2022). 멜랑콜리와 삶의 한 순간 표현 연구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손은신(2015). 기억의 경관에 대한 미적 경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효영(2022). 문예사조로서 낭만주의(Romanticism)가 발레에 미친 영향 분석 : 주제, 기법, 구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85(1), 97-110.
- 왕철(2012).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58(4), 783-807.
- 유정은(2017). 낭만주의 발레작품 「지젤」에 나타난 비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이겨라(2013).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분석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자명(2005). 19세기 발레작품에 나타난 낭만주의적 특성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정미(2011). 발레 ‘지젤’에 대한 미학적 접근 : 카타르시스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철학회**, 19(1), 189-199.
- 장동아(2022). <김백봉화관무>의 무대공간 활용과 정서적 특징.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장보운(2013). 상실된 대상의 시각적 재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유리(2013). 수면을 통한 멜랑콜리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조현숙(2014). 멜랑콜리(Melancholy) 사례 연구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후기 구조주의 정신분석관점에서-. **한국목회상담학회**, 23, 272-301.

- 최문규(2005). 근대성과 “심미적 현상”으로서의 멜랑콜리. *한국독일현대문학회*, 24, 200-228.
- 최세은(2020). *현대미술에서 멜랑콜리 표현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 Ajay Kumar Jaitly & Mallika Sahu(2023). A Symbiosis of Art An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Creative Research Thoughts(IJCRT)*, 11(3), 836-838.
- Carhart-Harris, R. L., Mayberg, H. S., Malizia, A. L., & Nutt, D. (2008). Mourning and melancholia revisited: correspondences between principles of Freudian metapsychology and empirical findings in neuropsychiatry.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7(1), 1-23.
- Dozois, D. J.(2000). Influences on Freud's Mourning and Melancholia and its contextual validity.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Psychology*, 20(2), 167-195.
- Hampartzoumian, S.(2004). La mélancolie au creux de la modernité. *Sociétés*, 86(4), 21-35.
- Montandon, A.(2011). Mélancolie de Théophile Gautier. *Études littéraires*, 42(3), 105-118.
- Tsaniya, A. L., Sunahrowi, S., Yulianto, A., & Kurniawati, N. (2023). La mélancolie de Sigmund Freud dans le roman Les Os des Filles de Line Papin. *Lingua Litteria Journal*, 10(1), 23-28.
- 이미숙(2023. 08. 16). 생로병사의 비밀, ‘스티브 잡스’처럼 예민한 한국인들...OECD 우울증 발생률 1위! 한국인의 우울장애는 ‘멜랑콜리아형’. *한국강사신문*.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37>, 2024. 02. 16>.
- Richie Perera, Executive Contributor(2024, January 10). A 2024 Perspective on the Multifaceted Nature of Mental Health. *brainzmagazine*. <<https://www.brainzmagazine.com/post/a-2024-perspective-on-the-multifaceted-nature-of-mental-health>, 2024. 07. 11>.
- Toy(2022. 08. 04). “Giselle, The Kirov Ballet (Mariinsky)- 1983. Mariinsky”.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rwgqnkScSw&t=3249s>, 2023. 03. 28>.

논문투고일 2024. 08. 15.
 심사일 2024. 08. 19.
 심사완료일 2024. 08. 30.

Analysis of Mélancolie in Act 2 Choreography of the 「Giselle」

– Based on the Sigmund Freud –

Park, Geon-ah* · Shon, Jae-hyun**

Ph.D. Candidate, Dongguk University*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expression of *mélancolie* by analyzing the choreography of Giselle's Act 2. The 18th century romantic ballet expresses human desire to escape reality in a fantastic and mysterious world. Among romantic ballet works, Giselle clearl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romanticism with the theme of tragic ending and *mélancolie*. The study analyzes how *mélancolie* is expressed in choreographic terms through the Freud's concept of ambivalence and identification. As a result, we found how *mélancolie* is visually revealed through the emotions, movements, and gestures of dancers, and it can be said that the tendency of *mélancolie* is effectively expressed through the coexistence of love and depression in the *pas deux*.

Keywords: Giselle(지젤), *mélancolie*(멜랑콜리), Sigmund Freud(지그문트 프로이트), Choreography(안무), Stage Movement(무대 동선)